

미혼성인의 피임행위 구조모형: 남 · 녀 비교

황신우¹ · 정재원²

¹대구 효성병원, ²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ntraception Behavior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Gender Difference

Hwang, Shin Woo¹ · Chung, Chae Weon²

¹HyoSung Hospital, Daegu

²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and validate a model to predict contraception behavior in unmarried men and wome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a questionnaire survey of 180 unmarried men and 186 unmarried women 20 years of age or over who had sexual relationships in the past 6 months. Participants were from Seoul, Kyunggi, Daegu, and Busan and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February 19 to April 16, 2013. **Results:** Model fit indices for the hypotheoretical model fitted to the recommended levels. Out of 15 paths, 1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Predictors of contraception behavior in unmarried men and women were intention to use contraception and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Exposure to sexual content was directly significant to the intention in men only.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was affected by perceived threat of pregnancy and gender role attitude. In women, the two predictors were also significant except for the effect of exposure to sexual contents.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an intervention program which increases self-efficacy in unmarried men and women contributes to effective contraception behavior. In addition, proper sexual education programs using positive aspect of mass media can help develop active participation for contraception behavior.

Key words: Single person, Contraception behavio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 시대의 성 개방의 분위기에서 혼전 성관계의 옹고 그림에 대한 언급은 논의 주제이다. 그 이유는 성관계에 대한 관점이 과거에 는 제도권 내에서 결혼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지만, 현재는 개인의 자

유로운 선택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 화적 맥락에 따른 성 인식의 변화는 미혼남녀의 성관계 비율을 증 가시켰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미혼남성의 3 분의 2, 미혼여성의 절반가량이 혼전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1]. 그와 더불어 매체에서 그려지는 성은 건강한 성문화를 만 들기 보다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하고, 이는 무책임한 성관계로 인한 임신과 낙태의 비율을 증가시켰다[2]. 미혼의 28.4-51.8%가 피

주요어: 미혼성인, 피임행위

*이 논문은 제1저자 황신우의 박사학위논문 의 축약본임.

*This manuscript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Shin Woo

HyoSung Hospital, 194 Suseong-ro, Suseong-gu, Daegu 706-837, Korea

Tel: +82-53-766-7750 Fax: +82-53-764-0163 E-mail: seochung@naver.com

Received: December 11, 2013 Revised: December 18, 2013 Accepted: February 23,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는 보고는 적절한 피임실천이 혼전 성경험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1].

2011년 수립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서도 미혼여성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횟수의 증가가 중심이 된 미혼남녀의 생식건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혼남녀의 성건강에 대해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혼전 성관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 성관계 시 올바른 피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속적인 피임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혼전 성관계 비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등 피상적인 내용만 있을 뿐, 올바른 피임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은 간과되어 왔다. 특히, 성별, 연령별 및 성지식 수준별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성교육만으로 적극적인 피임실천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인 피임실천을 통한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피임행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행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기반으로 한 피임행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변화는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다[4]. TPB는 행위변화에 있어 인간의 인지적 요인에 주목하면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면 그 행동에 대한 의도가 증가하고 또 실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콘돔사용이나 피임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계획적 행위이론의 개념들을 토대로 피임행위를 설명하고 있다[5,6]. 그러나 인간의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TPB의 기본 모형만으로 주관적 행동 통제가 어려운 피임행위를 설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특성이나 다양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7]. 둘째, 피임행위는 남녀 간의 성 차이가 있으므로[5,8] 피임행위 설명은 남녀를 구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헌을 통하여 살펴본 바, 피임의도 및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인 임신위험지각은 남성보다 여성이 임신에 대한 위협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의 결과로 초래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문제가 여성에게 더 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9]. 성역할 태도는 미혼남녀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무의식속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는 성관계의 상황에서 피임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10,11]. 환경적 요인인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남성의 경우 노출 정도가 더 많았으며 이는 피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계획적 행위이론의 개념인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및 피임의도는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지만, 연구 결과의 일관성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TPB 모형을 토대로 미혼남녀의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남녀 집단별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관련요인과 피임행위의 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함으로써 추후 피임행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남녀의 피임행위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피임행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남녀 각각 구축한다.

둘째, 가설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피임행위를 설명하는 최종 모형을 제시한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TPB 모형과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외생 변수로 임신위험지각을 포함하였다. 개인에게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건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9]. 따라서, 혼전 성관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임신에 대한 지각은 미혼남녀가 피임행위를 하는 동기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어 선행 요인으로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하였다[8,10]. 둘째, 외생 변수로 성역할 태도를 포함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생각, 감정, 의도를 의미한다[11]. 피임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은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성문화를 내면화하고 있기에 여성은 콘돔사용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성은 콘돔사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셋째, 외생 변수로 성관련 콘텐츠 노출을 포함하였다. 왜곡된 성관련 콘텐츠에 노출되면 피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반대로 피임실천을 강조하는 매체에 노출된 경우 피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였다[12,13]. 넷째, 가설적 모형의 나머지 경로는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TPB의 기본 변수 간의 관계 경로임으로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4].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임신위험지각, 성역할 태도, 성관련 콘텐츠 노출을 외생 변수로 설정하고, 피임에 대한 태도,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 및 피임의도와 피임행위를 내생 변수로 구성하였다. 임신위험지각, 성역할 태도, 성관련 콘텐

츠 노출은 피임에 대한 태도,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 및 피임의도의 매개변수를 거쳐 피임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혼남녀 각각 모형을 구축하여 경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표본크기로 제안하고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가 10개이므로 15배인 150명을 기준으로 남녀 각각 자료를 수집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선행 연구 결과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피임행위의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성경험이 있는 미혼남녀에게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비교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내 성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413부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고, 성관계 경험이 없거나 최근 6개월 내 성경험이 없었던 대상자 47부를 제외하고 총 366부(남성 180부, 여성 18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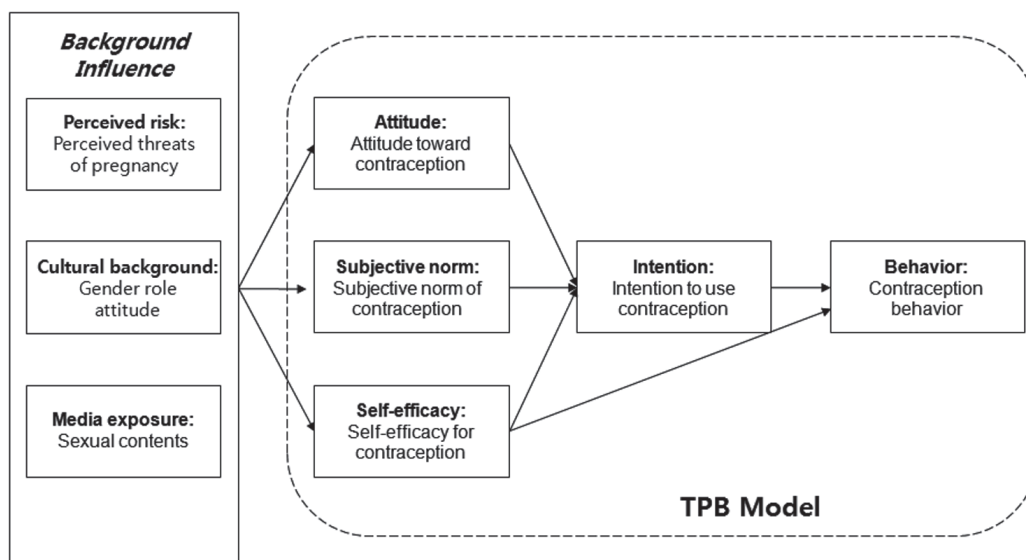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에서는 측정 변수의 수에 따라 표본크기를 계산하는데 변수 당 15명을 이상적인

3. 연구 도구

1) 피임행위

피임행위 도구[6]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피임행위 점수(Contraceptive Index [CI])는 피임행위 지속성과 정확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임행위 지속성 점수와 피임행위 정확성 점수에 각 피임방법의 피임효율 가중영향점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피임행위 지속성은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성관계 중에서 피임행위를 했던 비율을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은 1항목을 5점 Likert 척도(1= 전혀 피임하지 않았다, 5= 항상 피임하였다)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피임행위 정확성은 지난 6개월 동안 사용했던 각각의 피임방법의 정확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혼남녀들은 콘돔, 질외사정, 경구피임약, 월경력법을 피임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측정 항목은 콘돔 2문항, 질외사정 1문항, 경구피임약 1문항, 월경력법 1문항 총 5문항을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러지 않았다, 5= 매번 그렇게 했다)로 측정하였다. 대상자 혹은 대상자의 파트너가 사용하는 피임행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사용하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지 않았던 피임방법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에 표시하며 점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임의도

피임의도는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피임의도에 대해 '전혀 피임하지 않을 것이다' 1점, '가끔 피임할 것이다' 2점, '절반정도 피임할 것이다' 3점, '자주 피임할 것이다' 4점, '항상 피임할 것이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피임의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3) 피임에 대한 태도

콘돔사용 태도 도구(Condom Attitude Scale [CAS])[15]를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대학생의 콘돔사용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보호요인 5문항, 성교방해요인 7문항과 이미지 요인 4문항으로 구성된 총 16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피임도구를 비교하는 문항과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4개의 문항은 제외한 후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를 사용한 원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 .70 \sim .89$ 의 범위에 있었다[15]. 본 연구는 피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함으로 본래 문항의 '콘돔'이란 단어를 '피임'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16]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그러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호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39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가 .5이하인 변수는 모형의 적합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므로 보호요인은 측정 변수에서 제외시켰다[14].

4)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

금연에 대한 주관적 규범 도구[17]를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는데, 이 도구는 원저자를 통해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가능함을 허락받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계획적 행위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준거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다중문항이다. 보통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들은 단일문항으로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행위의 경우 여러 준거자를 포함하는 도구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람(준거자)은 부모님, 친구, 동료, 성관계 파트너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위 4명의 준거자를 포함한 4항목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사용한 원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였고[1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5$ 였다.

5) 피임 자기효능감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도구[5]를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음주가 환경적 요인으로써 피임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개념으로 밝혀졌기에[16], '나는 술에 취하면 요구에 휩쓸려 피임하기가 어렵다'는 1문항을 추가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콘돔이라는 한 가지 피임 방법에 국한하지 않고 피임방법 모두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래 문항의 '콘돔'이란 단어를 '피임'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의 원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0$ 이었고[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6) 임신위험지각

위험행동진단 도구(The Risk Behavior Diagnosis Scale [RBD])[9]를 사용하였다. RBD는 개발 당시 대상자의 연령이 17~22세가 91%였기에 미혼성인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RBD는 콘돔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의 위험성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위험지각 6문항과 효능감지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위험지각에 해당하는 6문항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위험지각은 심각성 3문항과 민감성 3문항의 2가지 속성으로 구분되며, 각각 Cronbach's $\alpha = .85$ 와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은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나, 심각성은 Cronbach's $\alpha = .58$ 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각성 영역의 내적 신뢰도가 .60보다 낮게 나타나 제거한 뒤 분석하였다.

7)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 도구(Sex Role Attitude [SRA])[11]로 측정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성능력 인식(12문항)과 성역할 인식(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7항목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도구를 사용한 원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8)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성관련 콘텐츠 이용 정도[12,13]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매체의 종류를 제시하고, 이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매체의 종류는 이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한 선행 연구와[13] 본 연구자의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음란 인터넷 사이트, 19세 이상 케이블, 19세 이상 지상파, 그리고 성인용 모바일 서비스로 총 6개 매체의 이용 정도를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로 '한번도 없음' 1점, '1년에 1~2번' 2점, '한달에 1~2번' 3점, '일주일에 1~2번' 4점, '주 3회 이상'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였고[1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4. 연구 진행 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자료 수집 전 S대학교 간호대학 연구 대상자 보호 심사위원회의 승인(IRB No. 2013-9)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 19일부터 2013년 4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하여 직업의 종류에 따른 대상자의 수를 고려하여 표본추출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18].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았던 사무직, 전문·기술직, 서비스·판매직으로 직업군을 구분하였고 20~30대 미혼남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생과 무직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위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대상 기관을 확인한 후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해당 직업군의 지인을 통하여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낸 후 회수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전화로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 대상자 선정범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설문지침 등을 교육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 앞장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여 설문 참여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사무직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공단 및 연구소에서, 전문·기술직의 경우 병원, 학교, 복지관, 건축사무소, 방송국, 광고회사, 금융기관에서, 서비스·판매직은 보험회사, 미용실, 네일샵, 택배회사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의 특성 상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지인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설문지 파일을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이메일 도입문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서를 삽입하였다. 빠진 문항이 있거나 불명확한 응답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대상자와 다시 접촉하여 보완하였으며, 대상자가 자신의 속도로 응답이 가능하였기에 응답자들의 사적정보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였다. 직접 및 우편 수집 261부, 이메일 수집 105부로 총 366부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 항목이 성과 관련된 사적인 내용이므로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한 후 대상자가 서면 동의한 경우만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설문지를 직접 및 우편으로 전달한 경우 동의서를 포함한 설문지로 구성하였고, 이메일의 경우 동의서를 포함한 파일을 함께 첨부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미혼을 대상으로 한 성경험에 관한 자료는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익명성과 비밀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설문지는 불투명 서류봉투와 함께 전달하였고, 설문지 작성 후 대상자가 직접 테이프를 봉하도록 하였다. 또한, 봉투 표면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표기도 하지 않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일정 수가 채워졌을 때 일괄 검토하였다.

연구 주제의 특성 상 최근 6개월 내 성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설문지 배부 전 성경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연구윤리에 어긋나므로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설문지 작성 시 대상자에 포함되는 기준을 명시한 설명서를 설문지와 함께 배부하였다. 만약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라면 설문 작성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자료 분석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둘째,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의 경우 대상자들끼리 서로 설문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 또한 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하는 동안 설문의 응답 내용을 보지 않기 위하여 설문 장소를 벗어나 설문이 끝나기까지 기다린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 회수 후 4천원 상당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SPSS 20.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수들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구성타당도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추정계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표준화 회귀계수(Regression weights),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 [SRW]), 고정비수(Critical Ratio [CR]), p 값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비수(GFI), 표준 χ^2 (Normed χ^2),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표준적합비수(NFI), 비교적합비수(CFI), 증분적합비수(IFI)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28.9세, 여성 27.5세였다. 대상자의 직업은 남성의 경우 사무직이 69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이 31명(17.2%)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문직 70명(37.6%), 사무직 66명(35.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남녀 모두 대부분(남성 93.3%, 여성 96.8%)의 대상자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졸 이상이었다.

대상자들의 성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첫 성관계 평균 연령은 남성 20.6세, 여성 22.1세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시 피임을 한 비율은 남성은 92명(51.1%), 여성은 127명(68.3%)이었고, 피임방법으로는 콘돔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남성 78.9%, 여성 63.9%). 성행위 결과 남성 18명(10.0%), 여성 15명(8.1%)이 임신을 경험했으며, 대부분 인공유산을 선택하였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성관련 특성은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대상자는 남성 125명(69.4%), 여성 167명(89.8%)이었다. 성관계 시 남성 39명(34.8%), 여성 64명(34.4%)의 대상자가 '항상 피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남성 81.7%, 여성 72.6%)은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임신위험지각은 남성 11.30 ± 2.40 , 여성 11.01 ± 2.49 였고, 성역할 태도는 남성 40.40 ± 9.27 , 여성 35.13 ± 9.08 였고,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는 남성 13.50 ± 3.79 , 여성 10.88 ± 3.82 로 나타났다. 피임에 대한 태도는 남성 35.43 ± 7.01 , 여성 36.97 ± 7.38 이었고,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남성 12.46 ± 3.45 , 여성 13.83 ± 3.39 였고, 피임 자기효능감은 남성 42.12 ± 6.69 , 남성 46.16 ± 7.02 였다. 마지막으로 피임의도는 남성 2.87 ± 1.03 , 여성 3.28 ± 0.93 이었고, 피임행위는 남성 6.10 ± 1.78 , 여성 6.63 ± 1.65 로 나타났다.

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정규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왜도는 절대값

이 2 이하, 첨도는 절대값이 7 이하로 표본의 일변량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였다. 일변량 정규성의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으므로,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14]. 따라서, 각 집단의 표본의 크기가 180 이상이고,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하였으므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선택하였다.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측정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7 이상이면 변수 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남성의 경우 .11~.69, 여성의 경우 .05~.65의 분포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남성집단은 $\chi^2=34.65$, GFI=.96, Normed $\chi^2=1.58$, RMSEA=.06, NFI=.95, CFI=.98, IFI=.98로 나타났으며, 여성집단은 $\chi^2=40.48$, GFI=.96, Normed $\chi^2=1.84$, RMSEA=.07, NFI=.93, CFI=.96, IFI=.97로 두 집단 모두 권장수준을 만족하였으므로 가설적 모형의 수정 없이 최종모형으로 확정하였다.

3. 가설적 모형 분석

남녀 모두 총 15개의 경로 중에서 11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행위에 대하여 남성은 49.1%, 여성은 46.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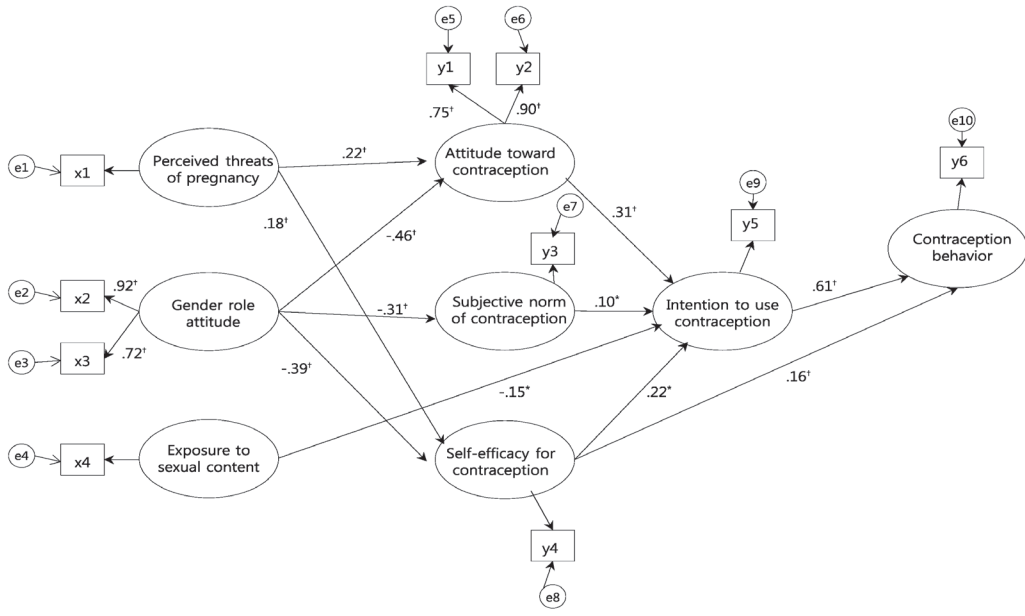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피임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경로 가운데 임신위험지각($t=2.95$)과 성역할 태도($t=-4.57$)에서 피임에 대한 태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설명하는 경로는 성역할 태도($t=-3.24$)에서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피임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경로는 임신위험지각($t=2.65$)과 성역할 태도($t=-4.44$)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피임의도를 설명하는 경로는 피임에 대한 태도($t=3.04$),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t=1.66$), 피임 자기효능감($t=2.38$)과 성관련 콘텐츠 노출($t=-2.26$)에서 피임의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피임행위는 피임의도($t=9.87$)와 피임 자기효능감($t=2.67$)에서 피임행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피임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경로 가운데 임신위험지각($t=4.27$), 성역할 태도($t=-4.11$)와 성관련 콘텐츠 노출($t=-2.07$)에서 피임에 대한 태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설명하는 경로는 임신위험지각($t=2.67$)에서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피임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경로는 임신위험지각($t=2.29$)과 성역할 태도($t=-5.63$)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피임의도를 설명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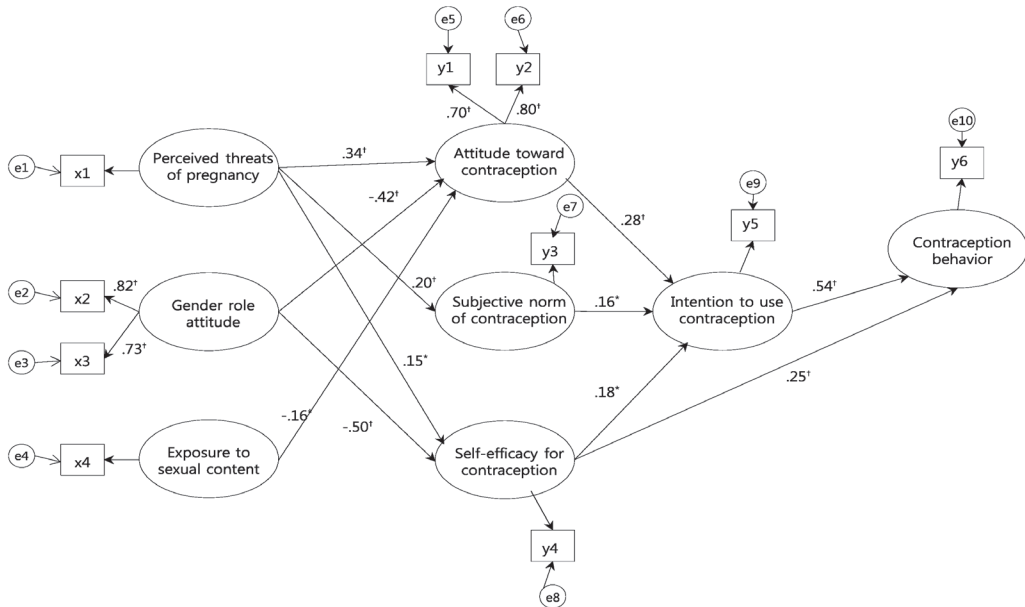
로는 피임에 대한 태도($t=2.34$)와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t=2.43$)과 피임 자기효능감($t=1.78$)에서 피임의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피임행위는 피임의도($t=9.23$)와 피임 자기효능감($t=4.16$)에서 피임행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 도형은 Figure 2와 같다.

4. 가설적 모형의 효과 분석

가설적 모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남성의 경우 피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신위험지각($\beta=.22, p=.013$)과 성역할 태도($\beta=-.46, p=.004$)였다. 이들 변수는 직접, 총



A. Path diagram of the hypotheoretical for men.



B. Path diagram of the hypotheoretical for women.

x1 = Perceived threats of pregnancy: Susceptibility; x2 = Gender role attitude: Gender role; x3 = Gender role attitude: Gender competence; x4 = Exposure to sexual content; y1 =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Interrupt sexual pleasure; y2 =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Image; y3 =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y4 =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y5 = Intention to use contraception; y6 = Contraception behavior. * $p < .05$; † $p < .01$.

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hypotheoretical model.

Table 1. Effects of Predictive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in the Model for Men and Women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Men			Women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of pregnancy	.22*	-	.22*	.34†	-	.34†
	Gender role attitude	-.46†	-	-.46†	-.42†	-	-.42†
	Exposure to sexual content	-.08	-	-.08	-.16*	-	-.16*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of pregnancy	.01	-	.01	.20*	-	.20*
	Gender role attitude	-.31†	-	-.31†	-.09	-	-.09
	Exposure to sexual content	-.03	-	-.03	-.07	-	-.07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Perceived threats of pregnancy	.18†	-	.18†	.15*	-	.15*
	Gender role attitude	-.39†	-	-.39†	-.50†	-	-.50†
	Exposure to sexual content	-.11	-	-.11	-.08	-	-.08
Intention to use contraception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31†	-	.31†	.28*	-	.28*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10*	-	.10*	.16*	-	.16*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22*	-	.22*	.18*	-	.18*
	Exposure to sexual content	-.15*	-.05	-.20*	-.08	-.07	-.16
Contraception behavior	Intention to use contraception	.61†	-	.61†	.54†	-	.54†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16*	.13*	.30†	.25†	.10	.34*

* $p < .05$; † $p < .01$.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성역할 태도($\beta = -.31, p = .004$)에서 직접,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피임 자기효능감에는 임신위험지각($\beta = .18, p = .011$)과 성역할 태도($\beta = -.39, p = .004$)가 직접,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임에 대한 태도($\beta = .31, p = .007$),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beta = .10, t = .043$), 피임 자기효능감($\beta = .22, t = .039$)과 성관련 콘텐츠 노출($\beta = -.15, p = .008$)이 직접,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행위에서는 피임의도($\beta = .61, p = .004$)는 직접, 총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피임 자기효능감은 직접($\beta = .16, p = .004$), 간접($\beta = .13, p = .039$), 총효과($\beta = .30, p = .005$)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피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신위험지각($\beta = .34, p = .004$), 성역할 태도($\beta = -.42, p = .008$)와 성관련 콘텐츠 노출($\beta = -.16, p = .051$)이었으며, 직접,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임신위험지각($\beta = .20, p = .028$)에서 직접,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피임 자기효능감에는 임신위험지각($\beta = .15, p = .050$)과 성역할 태도($\beta = -.50, p = .004$)가 직접,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임에 대한 태도($\beta = .28, p = .016$),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beta = .16, p = .037$)과 피임 자기효능감($\beta = .18, p = .211$)이 직접,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임행위에서는 피임의도($\beta = .54, p = .004$)와 피임 자기효능감($\beta = .25, p = .021$)이 직접,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추가

한 TPB 모델을 검증함으로써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예측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각 변수들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피임실천을 위한 성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임신위험지각은 남녀 모두에서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대상자는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피임행위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믿음이 강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임행위를 실천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9]. 분석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특히 임신위험지각이 피임에 대한 태도에 더욱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에 대한 위협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10]. 그러므로 피임행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중재(fear intervention)와 더불어 근원적으로 임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쾌락의 성을 뛰어넘어 성, 생명, 그리고 부모 됨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문별한 성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19].

성역할 태도는 미혼남녀 모두에서 피임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개방적인 성역할을 가지고 있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주관적 규범 정도가 높고, 피임 자기효능감이 강하였고, 이는 피임실천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에 대한 선입견이 적은 사람일수록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3]. 여성의 경우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

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피임하기를 원할지라도 실제 피임실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등한 역할 의식 고양과 긍정적 자아개념을 통해 본인의 성적 의무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성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남성의 경우 부정적인 성관련 콘텐츠에 많이 노출될수록 인지적 요인을 거치지 않고 피임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피임행위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노 그래픽에 많이 노출되는 남성은 행위에 대한 태도 등의 인지적 체계에 의한 옳고 그름의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임의도 및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남녀 공통적으로 성관련 콘텐츠에 적게 노출된 대상자일수록 피임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중매체 속 성관련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으며 비현실적인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다[19]. 이는 대상자로 하여금 왜곡된 성의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성행위를 이끌어 내게 된다. 문제는 암묵적으로 형성된 비현실적인 성가치관은 성관계를 오로지 쾌락으로 인지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성관계로 인한 임신과 낙태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20].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피임에 대한 인지적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었으나[10],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 집단에서 피임에 대한 태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남녀 집단 모두 나머지 요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적 내용을 담고 있는 미디어의 노출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6개 매체의 이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빈도만을 측정하였기에 실제 미디어의 내용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여도(involved)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무엇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명확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절실하다. 둘째,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성태도나 성의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통합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유해매체의 노출이 많은 대상자일수록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성행위에 대해 허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성에 대한 허용성이 높을수록 왜곡된 성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피임 없는 성관계와 그로 인한 임신, 낙태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피임 실천의 방해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성교육 전략이 요구된다. 자본이나 권력의 영향으로 왜곡되고 자극적인 내용이 난무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21]. 따라서, 미디어에서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성교육의 도구로 활용하여 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달하여 성규범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는 매체를 접하고 이해할 때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의도와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라 피임의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임에 대한 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하게 피임의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여성 집단이 더 유의미하다는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므로 그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 미혼성인의 피임행위를 인터뷰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 참여자의 경우 여성 참여자보다 적극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피임을 실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 여성의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자신의 미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실제 피임을 해야겠다는 신념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의도가 피임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피임의도를 거쳐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되었다. 이는 피임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구했던 남성과 다르게 여성 대상자는 성과 피임에 대한 담론이 가장 가까운 친구나 동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미혼여성이 다양한 성 정보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실제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어야 실제 피임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미혼남녀 모두에서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성관계의 상황에서 강한 자기효능감은 피임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요소이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관계의 상황에서 피임도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sexual refusal self-efficacy)을 고양시키고[3], 피임실천에 대한 파트너와의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elf-efficacy)을 기르는 것은[22]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피임의도는 남녀집단 모두에서 피임행위를 잘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피임행위를 더 잘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단순히 피임하겠다는 의도만으로 피임을 실천하기에는 방해요인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이 피임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상대 남성이 피임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피임행위를 실제 실천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알게 된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미혼남녀들은 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설문내용이 사적인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과 응답률을 보여주어 객관적인 정보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는 현 시대에서 성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되고, 더불어 미혼남녀들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임은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나는 성적으로 흥분하면 욕구에 휩쓸려 피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는 술에 취하면 욕구에 휩쓸려 피임하기가 어렵다' 등의 문항은 설문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피임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피임실천에 대한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관련 주제가 제대로 담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피임실천 방안과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피임행위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권장수준 이상의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므로 미혼남녀의 피임행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미혼남성과 여성 개별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모형을 구축하여 비교하였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계획적 행위이론의 모형에 개인적·환경적 요인인 선행 변수를 포함하여 적합성을 증명하였으므로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이론적 기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혼 남녀의 피임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연구에서 지지되었던 계획적 행위이론의 변수들은 미혼남녀 모두에서 피임의도 및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녀 간 경로와 영향정도의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관련 콘텐츠 노출과 피임의도

로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 성관련 콘텐츠에 많이 노출될수록 인지적 요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피임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피임에 대한 태도를 거쳐 피임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의도 역시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피임행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현재 피임의도와 미래의 피임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의도와 향후 피임행위 수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의 임신 및 성병 경험 등 인구사회학적 및 성관련 특성을 추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피임행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성병 예방의 개념을 포함한 통합적인 피임행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현재 미혼성인의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사료되므로 미디어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현 세대의 개인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Kim HY, Sun BY, Kim EY, Jung JH. Unwed mother's life world and policy agenda.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Report No.: Research Report-10.
2. Lee IS, Choi GY, Cha SH, Park HY, Lee JJ. A survey on the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e third survey in 2007.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10;53(6):512-519. <http://dx.doi.org/10.5468/kjog.2010.53.6.512>
3. Sieving RE, McRee AL, McMorris BJ, Beckman KJ, Pettingell SL, Bearinger LH, et al. Prime time: Sexual health outcomes at 24 months for a clinic-linked intervention to prevent pregnancy risk behaviors. JAMA Pediatrics. 2013;167(4):333-340. <http://dx.doi.org/10.1001/jamapediatrics.2013.1089>
4.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991;50(2):179-211. [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
5. Kang HS. An explanatory model of condom us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1.
6. Kim MJ.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plaining contraception behaviors of married Korean women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1.
7. Fishbein M. A reasoned action approach to health promotion. Medical Decision Making. 2008;28(6):834-844. <http://dx.doi.org/10.1177/0272989x08326092>
8. Song JE, Chae HJ.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 about contraceptives according to sex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0;16(4):399-408.

- <http://dx.doi.org/10.4069/kjwhn.2010.16.4.399>
9. Witte K, Cameron KA, McKeon JK, Berkowitz JM. Predicting risk behavior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iagnostic scal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996;1(4):317-341. <http://dx.doi.org/10.1080/108107396127988>
 10. Hwang SW, Chung CW. Contraception behaviors in unmarried men and women: A descriptive qualitative approach.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2;9(2):71-82.
 11. Moon YP. A study of sex-role attitudes, role-expectations and role-performances among urban married couple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89.
 12. Peter J, Valkenburg PM.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 on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2006;33(2):178-204. <http://dx.doi.org/10.1177/0093650205285369>
 13. Choi MI. Determinant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9;53(2):49-69.
 14. Yu JP. The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2012.
 15. Kang HS, Chang SB.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condom attitud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4;34(5):751-759.
 16. Hwang SW, Chung CW. Contraception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in unmarried female and mal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1;17(1):77-87.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1.77>
 17. Primack BA, Switzer GE, Dalton MA. Improving measurement of normative beliefs involving smoking among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2007;161(5):434-439. <http://dx.doi.org/10.1001/archpedi.161.5.434>
 18. Statistics Korea.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Daejeon: Author; 2007.
 19. Lee KH. Popular culture and sex education for teenager. Paper presented a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minar; 2013 April 17;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ain Center. Seoul.
 20. Kim EM, Yu SJ, Song MR.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3;20(1):18-26.
 21. HwangSong MH, Kim JM, Moon I. Predicting adolescent sexual behaviors and attitudes from the use of harmful medi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2008;9(2):1-13.
 22. Do M, Fu H. Is women's self-efficacy in negotiating sexual decision-making associated with condom use in marital relationships in Vietnam? *Studies in Family Planning*. 2011;42(4):273-282.